

MRI & Arthroscopic Findings Correlated to the Shoulder Instability

대구효성카톨릭 대학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방사선과학 교실 * *
최장혁 * , 권광우, 김신근, 이상욱, 한수일, 이영환 * *

견관절의 불안정성의 진단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적절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로 가능하다고 하며 일반 방사선 검사로 Static structure의 이차적인 변화를 보는데 그쳐, 불안정성의 주요인이 되는 Dynamic structure의 일차적인 손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향이였다. 근래에 관절경적수술이 발달하여 진단적 관절경을 통하여 Bankart lesion등 연부조직의 이상을 확인하고 관절경적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가의 MRI 등을 이용한 진단의 유용성이 줄어들어 감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경우에서 관절적 수술이 필요하며, 또한 대다수의 술자들이 영상진단적인 확인후 수술에 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임상증상에 관계된 연부조직의 병변은 MRI를 통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MRI로는 보기 어려운 구조물도 있으며 motion artifact 등에 의해 그 영상판독에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술전 MRI촬영을 통해 병변을 예상하고 관절경을 통해 확인후 MRI를 재판독 함으로써, 임상 증상에 관계된 병변에 대해 적절한 MRI image plane을 얻고 또한 그 판독에 도움을 주고자하여 시도하였으며 8례의 비교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1. 관절순의 병변은 임상소견에 근거를 둔 MRI판독과 관절경적 확인을 통한 재판독을 통해 병변 양상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혈관내 주입한 Gadolinium diffusion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관절막의 병변은 MRI를 통한 확인이 힘들었으나 Gadolinium diffusion을 시행했을 경우 관절막의 파열확인이 용이하였다.
3. 상완골두, Biceps long head, Rotator cuff lesion 확인에는 Gadolinium diffusion 여부에 관계없이 MRI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었다.